

2026년 8월 21일 장중 시황: 극단적 디커플링과 연쇄 반응

매크로 충격이 촉발한 글로벌 양극화와 다가오는 변곡점



[REPORT_TYPE]: 장중 업데이트

[TIMESTAMP]: 2026-08-21T13:03:11 (KST)

[COLOR_SYSTEM]: 상승 = Red / 하락 = Blue (한국 증시 표준)

오늘 장의 3대 핵심 관전 포인트

금리·채권 급등

매크로 충격 (Macro Shock)

위험 회피 심리 발동.
미국·유럽 주식 하락 및 금리
민감 섹터 매도세 심화.

미 10년물 국채 금리
4.09% (+5bp)

아시아 방어 vs 코스닥 붕괴

극단적 양극화 (Extreme Divergence)

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과
반도체·가치주 중심의 KOSPI
반등.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
매도 폭탄에 투심 악화.

코스피
+0.73%

코스닥
-4.63%

NVDA 실적 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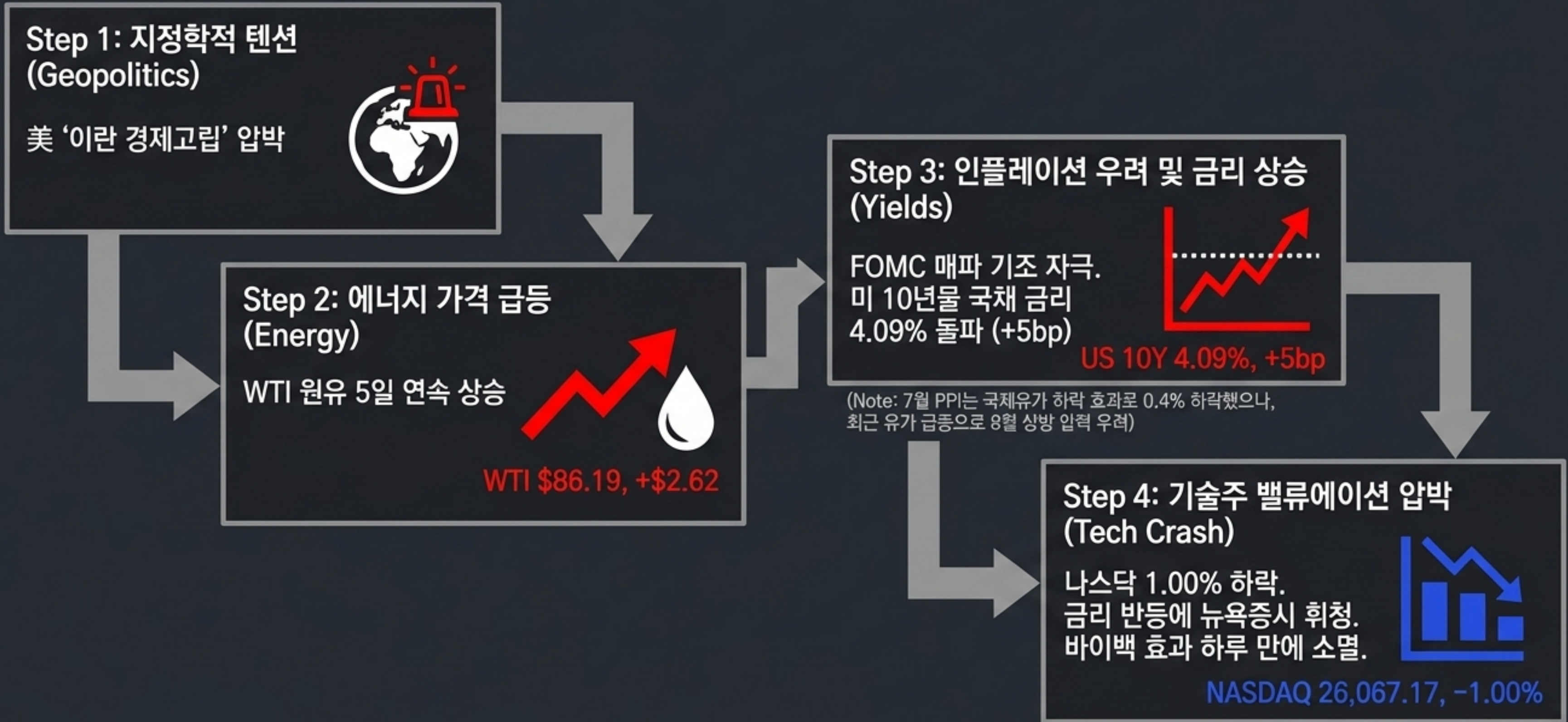
거대한 중력 (The Catalyst)

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을
앞두고 나스닥 변동성 확대.
AI·반도체 연관 주식의 선제적
포지션 조정 및 신중론 대두.



D-5
변동성 심화

매크로 도미노 이펙트 (The Macro Domino Effect)



FICC 자산군 단기 방향성 대시보드

미 국채 10Y	4.09% (+5bp)		Signal: FOMC 매파 기조에 따른 금리 상승
WTI 원유	\$86.19 (+\$2.62)		Signal: 이란 제재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
금 (XAU)	\$500 (+\$18)		Signal: 매크로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지속
원/달러 (USD/KRW)	₩1,394.50 (-5.30원)		Signal: 유로 강세 등에 따른 전반적 달러 약세 및 원화 강세
비트코인 (BTC)	\$67,350 (+\$1,240)		Signal: 위험자산 매수 심리 회복 및 ETF 순유입 지속

글로벌 디커플링 진단 매트릭스

하락 압력: 미국 (US Markets)

S&P 500: 7,641.16 (-0.87%)

NASDAQ: 26,067.17 (-1.00%)

Key Drivers

국채 금리 반등,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험 회피 (탐욕과 작별). '바이백' 효과 단기 소멸.

상승 방어: 아시아 및 유럽 (Asia/EU)

항셱: 22,944.00 (+1.59%)

상하이: 3,215.00 (+0.45%)

닛케이: 56,734.00 (+0.46%)

DAX: 24,998.00 (+0.80%)

Key Drivers

한국(삼성/SK 주주환원 기대), 유럽(우크라 평화협상 기대 및 방산 강세), 일본(엔화 약세발 수출주 호조). 금리 부담 속에서도 개별 모멘텀으로 방어 성공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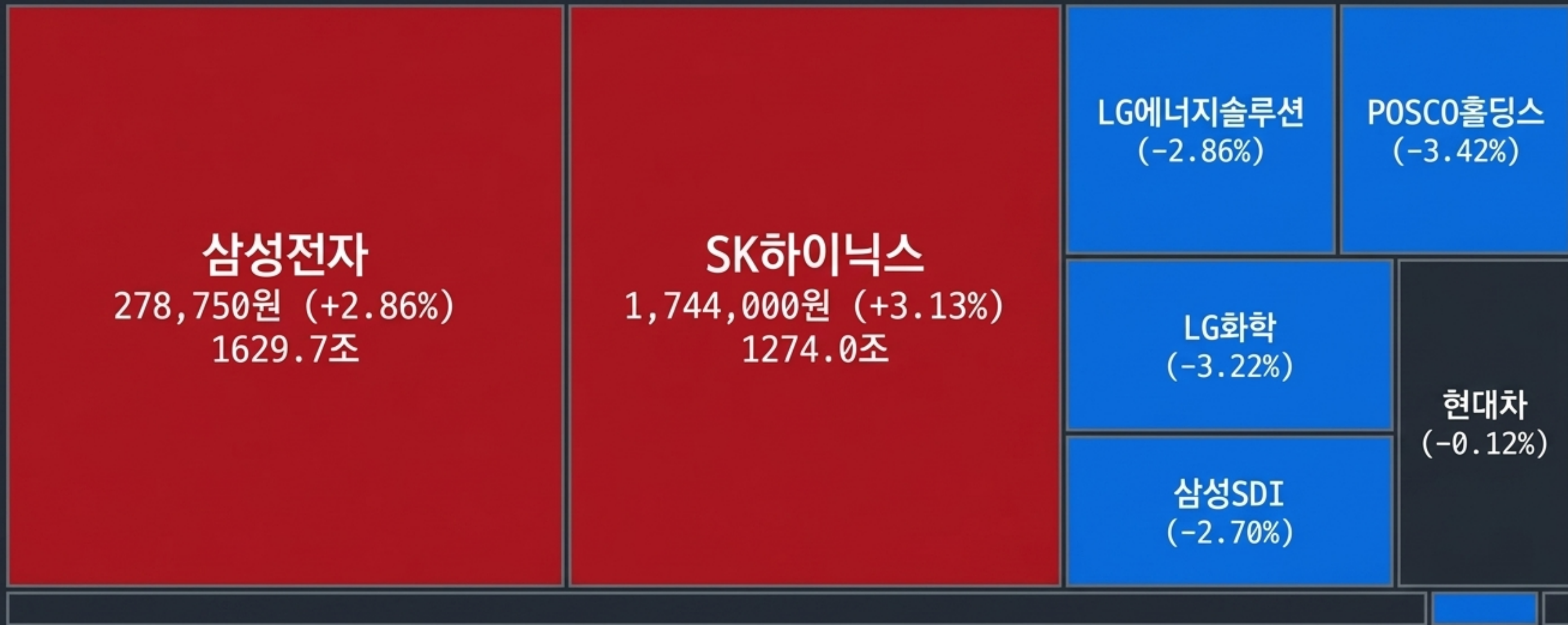
국내 증시, 극단적 양극화의 현장

KOSPI: 6,902.46 (+0.73%)

- 특징: 반도체 온기 및 밸류 저평가 매수세 유입.
- 핵심 방어 동력: 시가총액 최상단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의 강력한 지수 방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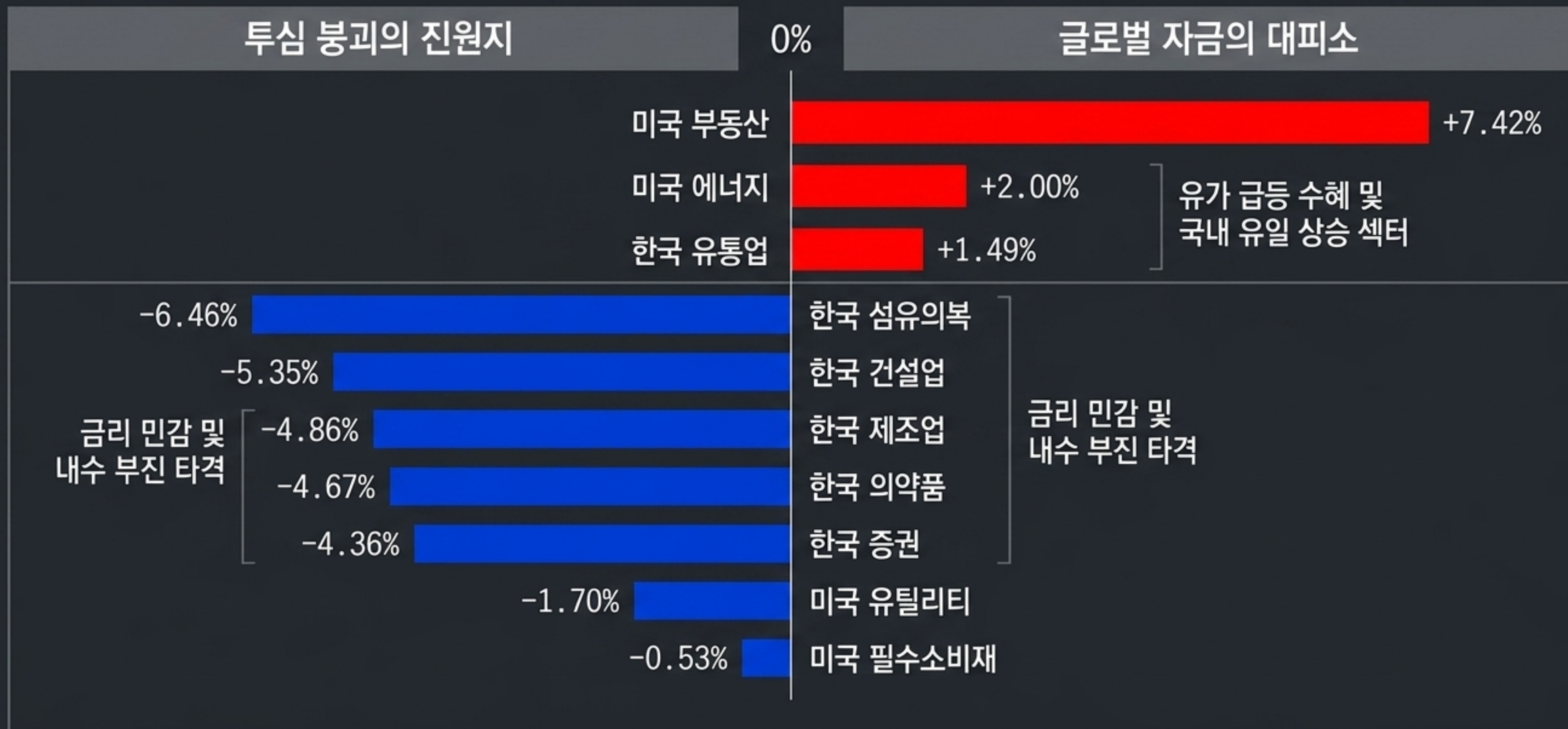
**KOSDAQ:
801.93 (-4.63%)**

- 특징: 매도 사이드카 발동, 800선 붕괴 직전의 패닉 셀링.
- 붕괴 원인: 7개월째 이어진 외국인 매도 우위 (7월 한 달간 국내 주식 32조원 순매도 기록의 연장선).



Key Insight: 시총 1, 2위 반도체 종목이 거대한 중력으로 지수를 +0.73% 끌어올렸으나, 그 외 2차전지, 철강, 자동차 등 대형주 대부분은 글로벌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동반 하락. (Heavyweight lifting 현상)

한·미 주요 섹터 자금 흐름 온도계



캘린더 타임라인: 다가오는 NVDA의 거대한 중력

Today
(8/21)

Pre-Event Phase

거시 매크로 충격
(유가/금리 상승) +
국내외 디커플링 심화

포지션 사전 조정 및 관망세 확산.
AI/반도체 연관 주식의 단기 변동성
극대화 및 신중론 접근 확대.

8/26
수요일

 NVDA
(NVIDIA)
실적 발표

시장은 매크로(금리/유가)의 편치에 흔들리면서도, 엔비디아라는 마이크로(기업 실적)의 최종 판결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반도체 편중이 심한 KOSPI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.